

◆ 북미

-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대형보험사 손실은 적을 것
- IAIS, 보험지급능력평가에 관한 중요지침서 발간
- 제도변화에 대한 캡티브 보험산업의 우려

◆ 유럽

- 영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2003년 대비 3배 증가
- Hiscox사, 전쟁·테러·정치적 폭력 담보 보험상품 개발
- 생명보험 및 연금부문의 2007년 3분기 주요 M&A

◆ 일본

- 간이생명보험, 보험가입 한도액 인상 방침
- 보험업계,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후 혼란 확산
- 일본은행, 2007년도 GDP 1%대로 하향수정 전망

◆ 중국

- 중국 보감위, 소액보험제도 시행 지원예정
- 타이핑양보험공사 연내 기업공개 예정
- 교육부, 외국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대형보험사 손실은 적을 것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산불이 Allstate Corp., Nationwide 그리고 State Farm과 같은 국내 보험사에게는 크게 손실을 입힐 것 같지 않음.
 -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통적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관목’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에서의 위험인수를 피해왔다”고 함.
 - 보험사들의 손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런던을 기반으로 한 Lloyd's와 같은 회사들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
 - 손실과 통제가 어려운 화재의 속성 그리고 과거경험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의 캘리포니아 산불의 보험손해는 5억 달러를 넘어 설 수 있다고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대변인이 언급
- III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해 보험산업은 175만 건의 보험청구로 41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함.
- 5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나고 San Diego에서만 1,250가구가 소실되었으며 주전체로는 약 6,800가구가 위협받고 있음. 10월 23일(화) 오후 현재, 약 30만 에이커가 전소됨.
 - 일요일이후 Santa Barbara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거의 20건의 화재가 보고됨.
 - 현재까지의 보험피해에 대한 질문에 Allstate, Nationwide, Start Farm과 Lloyd's 등은 아직까지도 화재가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대답함.
 - 미국의 보험사들은 바람에 따라 보험가입이 된 외곽지역에서의 손해로 피해를 볼 수 있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50만 달러로 이는 백가구가 소실될 경우 5천만 달러의 보험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

(Reuters, 10/23)

□ IAIS, 보험지급능력평가에 관한 중요지침서 발간

- 국제보험감독관협회(IAIS)는 지급능력평가에 관한 세 가지의 지침서를 발간함.
 - 이 지침서들은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보험산업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감독관들이 특정지급능력제도를 고려함에 있어 장려할 만한 세 가지 특징들을 확인함.
 - 계량적 비계량적 지급능력평가를 포괄하는 지침서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함.
 - * 규제자본요건의 구조
 - * 자본적정성과 지급능력목적에 위한 전사적 위험관리
 - * 보험사의 리스크와 자본관리를 위한 내부모형의 이용
- 이러한 지침서들은 IAIS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위험기준 지급능력평가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감독실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증진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지침서들은 높은 수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급능력평가기준이 개발되는데 토대를 제공할 것임.
- IAIS 기술위원회의 Alfred Gross의장은 “건전한 지급능력제도는 보험사감독에 중요하다. 이러한 지급능력 지침서의 발간은 지급능력평가에 관한 포괄적이고 밀접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자 하는 IAIS의 노력을 나타낸다”라고 말함.
- IAIS는 또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리고 지급능력목적의 자본자원결정이 라는 특정분야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은 적절히 규제되는 보험시장을 전세계에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IAIS, 10/22)

□ 제도변화에 대한 캡티브 보험산업의 우려

- 캡티브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미국 국세청 규칙(Internal Revenue Service rules, 이하 IRS rule)의 변경이 미국 버몬트지역 내 1400여 명의 산업 종사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캡티브 보험사는 대기업을 자회사로서 그들의 모회사를 유일한 고객으로 삼는 보험회사를 말함.
 - Fortune 100 기업 중 42개사가 버몬트주에서 캡티브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캡티브 보험산업에 우호적인 세법체계 때문임.
 - 현재 버몬트주에는 520개 이상의 캡티브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특히 Chittenden 지역은 캡티브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함.
 - 그러나 IRS rule이 변경되면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기업들이 버몬트주를 외면하고 보다 산업에 우호적인 버뮤다나 케이만군도 등으로 설립지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버몬트 캡티브보험협회 회장인 Molly Lambert는 IRS rule의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안에 불과한 만큼 청문기간동안 관련전문가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캡티브 보험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Stephanie Mapes는 IRS rule이 변경되면 현재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캡티브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밝힘.
 - 이번 이슈에 대해 분석중인 세법변호사와 회계사들은 만약 제안된 규제가 실행될 경우 캡티브 보험산업의 주무대가 다른 곳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
 - 한편 IRS의 대변인인 Nancy Mathis는 새로운 규제는 제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힘.

(Associated Press 10/17)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2003년 대비 3배 증가

- 보험사기로 인한 청구건수의 증가로 영국의 보험산업은 1년에 16억 파운드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남.
 - 보험사기 건수는 2003년에 비해 3배나 급증하였으며, 부정청구로 판단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금액도 하루 13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보험자협회인 ABI는 2006년 3월 ~ 2007년 3월에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주택 및 동산 담보, 자동차보험, 애완동물보험)에서 11건 중 1건이 사기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힘.

- 보험사기 건 중 85%는 허위청구 혹은 고의로 재물에 손실을 입히는 등 계약자가 손해를 부풀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기로 적발된 건의 약 절반은 가정종합성 보험계약으로, 예를 들면 고의로 카펫을 못 쓰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임.

- ABI의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부문 임원인 Nick Starling은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대처능력 강화로 보험사기 적발은 이전보다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의의 고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함.
 - 보험사기로 인해 해마다 선의의 계약자가 약 5%의 추가보험료 혹은 40 파운드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밝힘.
 - 또한, 과거 12개월 동안 성인의 11%인 5백만명 이상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기를 저지르기 쉽고 잉글랜드 북쪽에서의 사기건수가 남쪽보다 훨씬 많았다고 설명함.

(BBC News, 10/18)

□ Hiscox사, 전쟁 · 테러 · 정치적 폭력 담보 보험상품 개발

-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계 보험회사인 Hiscox사는 최근 전쟁, 테러, 정치적 폭력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결합상품의 판매를 발표하였음.
- 종합재물담보인 동 상품은 신흥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대규모, 국제적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데, 이는 전쟁 혹은 무력사태 등 충돌시 동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공격받기 쉽다는 특성 때문임.
- 동 상품은 all-inclusive 형태로, 수요자의 특정 환경에 부합하도록 맞춤설계되며 담보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테러행위와 파괴행위(사보타주)
 - 테러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악의성 손해
 - 폭동, 소요, 파업
 - 습격, 외적의 행위, 교전(전쟁선포 유무를 불문), 내란, 모반, 혁명, 쿠데타, 반란
 - 전쟁
- 또한, 상품가입시 특혜가 주어지는데, 세계적인 위험 컨설턴트 업체인 Control Risks의 종합안전심사와 평가, 안전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실행, 위기관리 계획과 훈련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Hiscox사의 관계자는 “글로벌화 팽창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사업환경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테러보험과 같은 개별 위험 담보 상품을 구매하였고 여전히 일반적 추세이나, 손해원인 판명시 전쟁·테러·정치적 폭력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논란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 올인원 형태의 동 상품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이며 사업이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안전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함.

(Insurance Journal, 10/12)

□ 생명보험 및 연금부문의 2007년 3분기 주요 M&A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Datamonitor는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M&A, 전략적 제휴 그리고 유기적 성장, Q3 2007”을 최근 발표하였는데, 주로 유럽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장 확대의 핵심 지역은 아시아 시장이었는데, 막대한 인구와 낮은 보험 침투율을 가진 중국이 핵심 타겟이었음.
 - AIG의 자회사인 AIU보험사가 CIRC(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Manulife-Sinochem생명보험이 쓰촨지방의 난충시에 신규 판매사무소 개소를 허가받았음.
 - Zurich사는 Zurich보험중개사(Beijing)를 신규 설립하여 대주주인 Best Harmonious사를 인수를 통해 획득한 지역정보를 활용하여 멀티채널 플랫폼을 통한 상품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
 - 그 외에 베트남에서는 AXA와 Bao Minh사의 전략적 제휴(AXA가 16.6%의 지분소유)를 맺었고, Manulife는 사이공에 본사를 신규 개설하여 베트남시장에서 발판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중동부유럽에서는 특히 러시아가 시장 확대지역으로 주목되었는데, Aviva가 모스크바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였음.
 - 그리스 또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ING는 Piraeus Bank와 10년간 판매 제휴관계를 맺는 형태로 진입하였음.
- 유럽의 주요 회사들은 M&A를 통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는데, 유럽에서의 2007년 3분기 주요 인수사례는 BNP Paribas의 RBS International Securities 인수 그리고 Friends Provident와 Resolution Life의 합병 사례임.

(Datamonitor, 10/23)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간이생명보험, 보험가입 한도액 인상 방침

- 일본우정그룹(JP)의 ‘간이생명보험’은 금년 중 금융청과 총무성에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후 내년부터 보험가입 한도액을 2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간이생명보험’의 신도우 회장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계약을 2008년부터 회복하고 싶다”고 말함.
 - 현재의 ‘간이생명보험’의 가입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1000만 엔이지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피보험자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보험금을 받지 않고 4년이 경과했을 경우 5년째부터 추가적으로 300만 엔까지의 별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이번 상향 조정에는 추가범위를 1000만 엔으로 확대해 최초의 1000만 엔과 합해 2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이 외에 인가를 요구하는 항목으로서 보통 양로보험의 가입연령의 상한을 현행의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 종신보험의 일부 가입연령의 하한을 현행의 20세부터 18세로 하향 조정함.
 - 또한,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입원 시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종전의 ‘5일 이상 입원’에서 ‘1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됨.

- 간이생명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1998년 약 665만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약 238만 건으로 감소함.
 - 10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 일본우정그룹(JP)은 산하에 우편사업회사, 우체국회사, 은행, 간이생명보험 등 5개 자회사로 구성되며, 임직원수가 24만 100명에 달하는 일본내 최대규모의 그룹임.

(mainichi news 10/26)

□ 보험업계,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후 혼란 확산

- 최근 일본의 보험업계는 10월부터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법 시행을 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특히 투자리스크나 수수료 정보에 관한 글자의 크기나 고객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표시의 의무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9월 30일) 시행 후, 지하철이나 신문, TV, 라디오 등의 광고표현 방법이 크게 변했으며,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알려 판매하는 법률의 취지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법률안 제정시 금융청의 책임자를 맡은 마츠오 교수는 평가함.
 - 그러나, 각 기업의 광고를 자세히 보면, 설명책임에 관해서 “지나치게 광고 제한을 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음.
 - 예를 들어 야구장 간판에 투자리스크를 크게 기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간판에 펀드명을 삭제한 채 기업이름만을 광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발생함.
- 또, 충분한 상품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판매해선 안 된다고 하는 「설명책임」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2번 이상 점포에 방문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부규정을 마련한 회사도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후 개정된 금융상품거래업자 감독지침에 따라 증권거래감시위원회와 금융청의 검사도 시작되었으며,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글자 크기와 설명의무 등 준법감시 대응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변액연금 등의 광고는 법 시행 후, 투자리스크를 설명하는 문자 크기가 커진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제3보험은 여전히 종전의 문자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상품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

(일본보험매일신문 10/23)

□ 일본은행, 2007년도 GDP 1%대로 하향수정 전망

- 일본은행은 이달 31일 발표하는 중장기 경제예측 보고서에서 2007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예측치를 지난 4월 시점의 2.1%에서 1.9%로 하향 수정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함.
 - 이 같은 하향 수정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계연도 출발점인 4~6월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데다 6월에 시행된 개정 건축기준법의 영향으로 신축 주택 착공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이 요인으로 꼽힘.
 - 그러나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 부문의 호조가 가계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는 만큼 “완만한 확대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경기 판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지난 9월 일본은행 기업 단기 경제조사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의 완만한 상승을 확인하였으나, 정체현상을 보이는 설비투자나 개인 소비 때문에 4~6월말 GDP 수정치가 하향 수정되어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였음.

- 일본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의 전망치를 작년 10월 시점에서 전년도 대비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CPI는 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상태임.
 - 이번 CPI 예측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휴대전화의 요금 인하가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분석함.
 - 정책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서브 프라임에 따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연내 금리인상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특수로 내년 1월에 CPI의 플러스 전환이 기대 된다”고 분석함.
 - 일본은행의 보고서는 금융정책의 토대로 경제물가추세를 신중하게 분석하면서 금리인상의 시기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임.

(sankei news 10/24)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보감위, 소액보험제도 시행 지원예정

- 지난 9월 25일 중국생명(中國人壽)이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전국 소액 보험업무 교류회’에서 보감위 관계자는 "중국도 소액보험 제도를 시행할 때가 도래했으며 보감위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형 보험회사의 소액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중국에서 소액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금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까지 소액보험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현재 중국생명을 비롯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국제보험감독관협회가 정의한 ‘공인된 보험관례에 따라 운영되는 저소득자를 위한 보험’을 차용하여, 최근 보감위의 지원을 받아 관련 상품을 내 놓고 있음.
- 중국생명은 산시(陝西)성 상뤄(商洛)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외지로 나가 노동현장에 근무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무리 한 뒤, 위험과 수입정도를 따져 맞춤형 소액보험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함.
 - 동 상품은 10일-10위안, 1개월-20위안, 1년-30위안 등으로 기간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중국생명은 지난 3년 동안 약 8만명의 농민공(본업은 농민이면서 외지에 나가 노동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353만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이 중 2천여 건에 대해 약 207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금융시보, 10/19)

□ 중국 타이핑양보험공사 연내 기업공개 예정

- 타이핑양보험공사(太平洋保險公司)가 일괄상장 업무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 주식공개 관련 허가절차를 마무리 짓고 연내 상하이(上海) A주식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타이핑양보험공사의 주식공개 규모는 최대 300억 위안(한화 약 3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타이핑양보험공사가 상하이 A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기 상장된 중국생명(中國人壽), 중국핑안(中國平安)과 함께 트로이카 생명보험주식으로 등록되게 됨.
 - 이들 3개 생명보험회사는 본사가 각각 베이징(北京, 중국생명), 상하이(타이핑양보험공사), 선전(핑안보험) 등에 소재함으로써 지역적으로도 적절한 안배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타이핑양보험그룹은 산하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관리회사, 합자보험회사 등을 두고 있음.
 - 이중 생명보험은 중국 내 3위, 손해보험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증권회사 관계자는 중국생명이 18.88위안, 핑안보험이 33.8위안에 발행되어 상장 당일 각각 37위안, 50위안에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타이핑양보험공사는 발행가가 약 15위안 정도에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최고 30위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타이핑양보험공사가 상장된 이후에도 중국 재보험공사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A주식시장에서 보험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매일경제신문, 10/19)

□ 교육부, 외국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 중국 교육부는 최근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정부지급 장학금 수령자에게 의료, 상해, 신체보장 담보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자비유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 교육위원회 혹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상해,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
 - 중국 교육부는 지난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외국 유학생에게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교육부의 이와 같은 지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새로운 규정은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연락오기 전에 보험회사가 먼저 달려갈 것이다."며 매우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기준 중국에는 약 184개국에서 온 16만 3,000명의 유학생이 519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핑안생명(平安人壽) 관계자는 "상하이(上海)시 각급 대학에 유학 중인 상당 수 자비 유학생들은 여전히 보험가입에 소극적이다. 이는 보험회사나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은 탓도 크다. 앞으로 학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외국 유학생에게 단체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시도할 계획임을 밝힘.

(매일경제신문, 10/2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0.12(금)	07.10.19(금)	07.10.26(금)	전주대비
금리 (%)	美 10년국채	4.71	4.68	4.39	4.40	+0.01
	英 10년국채	4.73	4.00	4.89	4.85	-0.04
	日 10년국채	1.68	1.70	1.60	1.62	+0.02
주가	美 DJIA	12,463.15	14,093.08	13,522.02	13,806.70	+2.11%
	美 Nasdaq	2,415.29	2,805.68	2,725.16	2,804.19	+2.90%
	英 FTSE	6,240.90	6,730.70	6,527.90	6,661.30	+2.04%
	獨 DAX	6,596.92	8,041.26	7,884.12	7,949.17	+0.83%
	佛 CAC40	5,541.76	5,843.95	5,740.48	5,794.87	+0.95%
	日 Nikkei225	17,225.83	17,331.17	16,814.37	16,505.63	-1.84%
	中 상해종합	2,675.47	5,903.26	5,818.05	5,589.63	-3.93%
	대만 가권	7,823.72	9,496.47	9,611.72	9,631.51	+0.21%
	홍콩 항셱	19,964.72	28,838.37	29,465.05	30,405.22	+3.19%
환율	엔/달러	118.90	117.33	115.48	114.01	-1.47
	달러/유로	1.3148	1.4202	1.4294	1.4325	+0.0031
	위안/달러	7.8135	7.5060	7.5110	7.4820	-0.0290